

해설 제주 신항만 건설, 기대효과와 과제는

도민 공감대·예산 확보 없인 험로 불가피

뚫 올리는 ‘제주 신항만’

해상교통안전·원도심 활성화
‘동북아 허브’ 기대감도

대규모 해양매립 반발 예상
제주 크루즈시장 침체 속
3조원 규모 예산 확보 난제

도 “환경 훼손 최소화…
역량 결집 크루즈여객 유치”



제주 신항만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이 본격화된다. 제주도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지 4년만에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착공하고 2040년 준공된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는 이르다.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살펴 본다.

▶국제 크루즈 거점항 가능성=제주 신항만 개발은 제주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선석 포화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항은 11개 부두에 29개 선석(내항 24·외항 5)이 있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여객선과 화물선이 접안을 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정박 대기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1개 선석을 여러 척의 여객선이 이용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신항만 건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은 물론, 해상교통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쇠퇴해가는 제주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항을 통해 입도하는 400만명 규모의 관광객들이 제주시 원도심에 머물면서 도시재생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신항만 조기개항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동북아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제주 신항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항이 완공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여객항만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중국과

일본, 대만 사이에서 크루즈가 접안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며 “앞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 거점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 위한 제주도 발전방향안에 신항만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교통·물류체계 구축’ 과제가 담겨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항 개발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대규모 해양매립 반발 예상=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3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고 국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기재부와 해수부 등과의 중앙 대결충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 크루즈 접안시설과 배후단지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1조원 유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 국제크루즈 관광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자 확보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 연도별 국제크루즈선 입항 실적을 보면 ▷2016년 507회·120만9106명 ▷2017년 98회·18만9732명 ▷지난해 20회·2만1703명 ▷올해 5월 기준 17회·2만661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크루즈선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발은 2년째 전무하다.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기항 실적도 올해 단 2건뿐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이 같은 이유로 신항 계획 고시를 미루기도 했다. 논리 개발과 가시적인 크루즈시장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민자 유치 및 협력 기관으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신항만 계획은 해양 매립이 불가피해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로 건설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쓰레기 줄이자”… 머리 맞댄 시민들

서귀포시 지역 활동 ‘쓰시본’
4개 분과 구성·매달 토론회
쓰레기 감량정책 발굴 동참

서귀포시 지역의 민간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이하 ‘쓰시본’)'가 가정에서부터 사업장까지 각 분야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16년 10월 부녀회장, 상인연합회장, 이·통장협의회장 등 38명으로 구성된 쓰시본은 지난 4월 가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영농폐기물 줄이기 4개 분과를 구성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분과별 과제 발굴에서부터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5월부터 매달 열어오고 있다. 분과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쓰시본 전체 토론회 발표를 통한 의견 수렴과 행정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시책으로 확정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정쓰레기 줄이기 분과에서

는 자생단체 회의시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 강화,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과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강의 경연대회 개최, 경조사시 반찬 가짓수 줄이기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또 사업장쓰레기 줄이기 분과에서는 도외 반출품목(PVC·고무제품) 처리 개선, 타일·석고보드 등 건설현장 재활용 확대 과제 수행을 위해 처리현황 파악과 도외 처리업체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영농폐기물 줄이기 분과에서는 폐타이어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각종 농업 교육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쓰시본의 분과별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돼 실천가능한 방안은 행정시책에 반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쓰시본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분과별 토론회와 전체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실천 가능한 부분은 시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건축 인허가, 만화로 알기 쉽게”

표선면, 민원인 위한 책자

표선면이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로 담은 ‘한 눈에 보는 알충달충 건축이야기’ 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선면은 건축이야기 책자 1000부를 제작해 관내 10개 마을에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책자는 민원인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담아냈는데, 딱딱한

법령이나 지침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제주자치도 메인 캐릭터인 돌이와 소리가 묻고 답하는 만화 형식으로 어려운 건축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방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 중 ▷사실상 도로 건축 가능 여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방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방법 등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오랜 민원해결, 소통해소팀이 나선다

제주시 주택과 운영

제주시 주택과는 장기 미처리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해소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과는 현재(7월 초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된 민원이 64건으로 장기 미처리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매주 월요일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미처리 사유를 분석·처리할 예정이다.

소통해소팀은 관계 법령 부적합,

부서협의 지연,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주 1회 주택·건축과 및 읍·면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참석해 미처리 민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처리 건축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해소팀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생명 위험 ‘불법 주정차’

다함께 뿌리 뽑아요”

서귀포시, 도심서 캠페인
4대 금지구역 홍보활동도

서귀포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에 시민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1일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자치경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해 결의대회를 열고 도심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불법 주정

차 근절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로 터미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대(횡단 보도·버스정류소·도로 모퉁이·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민신고제에 대한 전단지,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시민 동참을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상향(승용차 기준 4만→8만원)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농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1리

김00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밑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히토락F + 복비
- 비 대 : 히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치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을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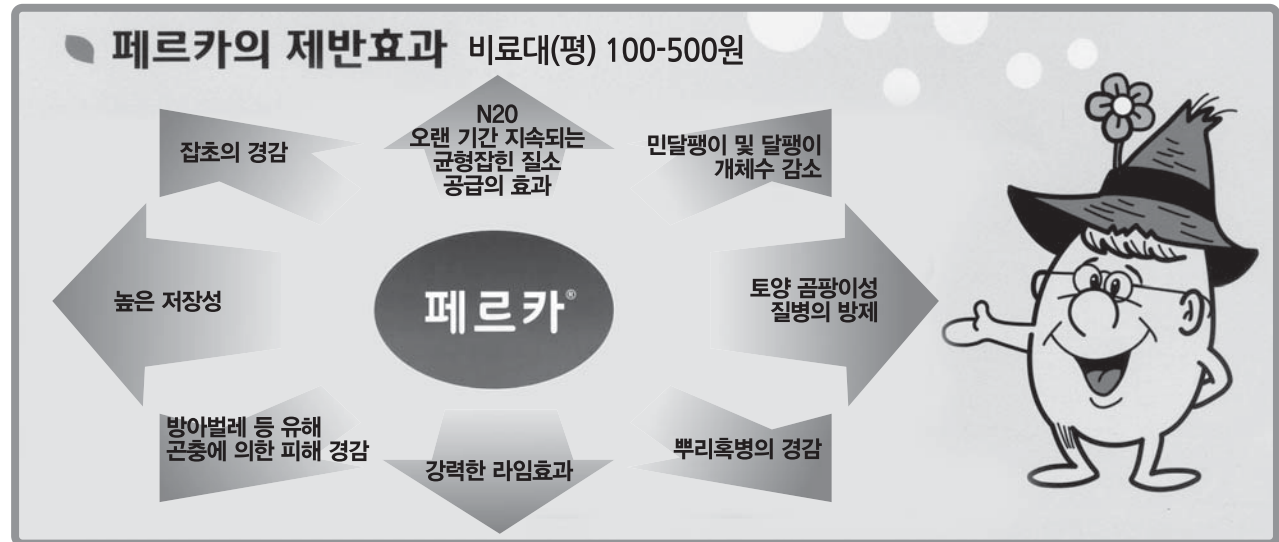
곰탕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견주 연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